

# 진각국사, 포항시 시인물 지정

## 고려말 마지막 화엄종 국사... “한국불교 이끈 선지식”

진각국사 배천희 스님(1307~1382)은 고려 말 승려로는 최고의 지위였던 국사에 오른 고승이다. 마지막 화엄종 국사인 스님은 불교사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또, 깨지고 마멸된 상태로 수원 성곽 내 비각에 남은 ‘장성사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彰成寺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 보물 제14호)’와 사당, 당간지주 등 배천희 스님과 관련한 문화재들은 방치되었다 못해, 2006년에는 스님의 분본이 도굴되는 수모마저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시장 박승호)가 진각국사 배천희 스님을 2009년 10월~2010년 10월 시인물로 지정해 신앙 사업을 준비 중이다.

향토사학자로 배천희 국사를 연구해 온 포항시 정신문화연구원 황인 자문위원(포항정보여고 국사교사)은 “진각국사 배천희 스님은 고려 때 흥해를 현에서 군으로 승격시킨 포항의 인물이나 스님을 아는 이

가 드물다”며 “포항시와 협의해 스님을 알리는 플래카드, 포스터 등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신앙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천희 스님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출신이다. 13세에 화엄종찰인 반룡사(盤龍寺)에서 일비(一非) 대사에 계 출가해 19세에 승과에 합격했다. 이후 금생사 덕천사 부인사 개태사 낙산사 등 10여 사찰의 주지를 지내다 76세(법랍 63세)로 임직했다. 몽산에서 의발을 받고 귀국해 신돈과 친했다. 공민왕 16년(1367)에 국사로 대화엄종사 선교가 되고 영주 부석사의 주지로 전우를 중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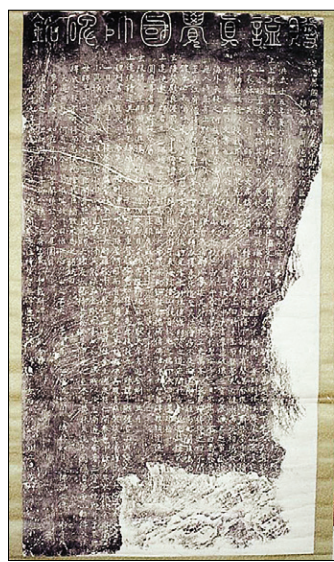
스님 입적 후 왕명에 따라 고려말 목은 이색이 짓고, 해잡이 새긴 비(보물 제14호)에는 “임금께서 진각국사라 시호를 내린 후 탑을 대각원조라 이름하고 신이래에게 비명을 쓰라 하명하시니... (중략) 대사께서 두루두루 넷물처럼 흘러 다녔고

밝고 빛나는 저 해와 같도다. 임금께서 대사를 승배해 국사로 삼았다”라고 쓰여 있다.

흥해를 학현지 포항공원 묘원 인근에 세워진 배천희 국사의 유허비(높이 1m)는 ‘국사배선생유허비(國師裴先生遺虛碑)’라 음각돼 있지만 비문의 다른 글씨는 마모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다. 유허비를 보호하기 위한 비각을 비롯해 인근 천곡사에 남은 사당도 최근까지 남아 허물어질 정도였던 것을 흥해 배씨 문중에서 새로 건립 중이다.

스님의 분본은 흥해읍 양백리 마을 뒷산(일명 백산)에 있다. 일반인들의 무덤보다 규모가 크며, 대형 당간지주(높이 1m 40cm, 4각형) 2개가 무덤 양쪽에 우뚝 서 있다. 현재는 후손(국사의 속가 형인 배전의 후손들이 음력 10월 7일마다 제를 올리고 있다.

동국대 황인규 교수는 “배천희 국사는 마지막 화엄종 국사였을 뿐만



수원 성곽 내 비각에 보관 중인 ‘장성사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보물 제14호)’의 탁본

아니라 고려말 원나라 간섭기를 벗어난 개혁시대에 주체적인 한국불교를 이끌었다”라며 “당시 외교적 공적과 분본이 남은 등 학술적 특성을 차지하고라도 한국 불교를 이끈 선지식으로 신앙돼야 할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 무심천에 천까지 염원 띄우니...

## 청주 청원불교련, 청주 유등문화제 성료

청주 청원불교연합회(회장 광혜)는 9월 4일 청주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유등문화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에는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남상우 청주시장을 비롯한 청주 청원지역 시민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1000여 개의 유등에 적지 찾지 염원과 각자의 소망을 담아 무심천에 띄웠다.

무심천 특설무대에서는 동방대학원대학 졸업생들의 바라춤 등 전통불교의식과 기념법회가 병행됐다.

연합회 수석부회장 현진 스님

의 개회사로 시작된 법회는 용화사 합창단의 육법공양, 연합회 상임부회장 각연 스님(용화사 주지)의 대회사, 연합회 회장 광혜 스님(금불사 주지)의 봉행사, 태고종 중앙총회의장 원봉 스님(보현사 주지)의 치사, 용암 스님(명장사 주지)의 기원문, 청주청원불교연합회 합창단(지휘 장은주의)의 축가, 충북경제인 불자회와 충북불교대학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연합회 회장 광혜 스님은 봉행사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도덕적 타락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적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웃에게 곱없이 어질고 따뜻한 자(慈) 무량심,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과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비(悲) 무량심, 이웃의 기쁨을 사심 없이 기뻐하는 희(喜) 무량심, 집착하고 얽매이지 않고 평등하고 공정한 마음인 사(捨) 무량심을 갖자”고 말했다.

한편, 무심천 유등문화제는 2005년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과 연계해 적지 찾지 유등문화제로 시작해 매년 개최해 왔다.

**혜철 충청지사장**

# 아미타불 점안... “등불 밝혀라”

## 은적사, 1000등 불사 회향법회도 봉행

조동종 사천 은적사주지 법광·조동종 경남사부종무원장)에서 아미타불 점안식 및 1000등 불사 회향법회가 9월 10일 봉행됐다.

행사는 조동종 중정지명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대은 스님, 감찰원장 덕성 스님, 강기갑 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명 스님은 법어에서 “은적사에서 아미타부처님 및 1000등 불사를 이루기 위한 법회는 서방극락세계로 가는 복을 짓는 것이며, 1000등 불사는 부처님을 새로 조성하고 부처님 도량을 밝았으니 등불을 밝히면 자기 앞날에 어두운 곳에서 등불을 만난 것처럼 부처님 광명을 얻을 것”이라며 “불교 발전과 사부대중을 위해 크게 이바지 하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대은 스님은 격려사에서 “은적사 주지 법광 스님은 부처



9월 10일 사천 은적사 불사 회향법회 전 스님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님의 찬란한 법을 펴며 승가에서는 화합과 포교를 실천하시는 종단의 큰스님”이라고 치하했다.

법해 스님은 축사에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심신을 청정하게 했을 때 지상은 불국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며 “중생을 위해서 대자비사상을 널리 보급시키는 교화전법으로써 포교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다툼과 갈등, 불화를 야기하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사회를 살고 있다”며 “오늘 은적사의 불사 회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삶에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원 경남남부지사장**

# 포항 황해사, 2대0 우승

## 천태종 배구대회



중정 도용 스님이 황해사 대표에게 우승트로피를 전달하고 있다.

전국 천태종도들이 한데모여 화합을 다지는 제36회 상월원각대조사기 배구대회를 9월 6일 성료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6일 충북 단양 공설운동장에서 중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스님들과 내외빈, 천태종도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상월원각대조사기 전국천태종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중앙청년회(회장 오순해) 주최로 열린 이날 배구대회에서는 포항 황해사가 경주 청강사를 2: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직후 거행된 시상식에서 중정 도용 스님은 직접 상장과 트로피,

상금을 수여하며 각 사찰 신도회와 청년회간 단합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이날 개회사로 “당당한 우리 시대의 주인공, 미래 시대의 주역이 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자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치사했다. **노덕현 기자**

# 심회향놀이 재현

조선시대 명맥이 끊긴 심회향놀이가 천태종 수륙영산제에서 재현돼 관심을 모은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9월 11~15일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에서 유년 수륙영산제와 생연제수제를 병행했다.

이날 각 행사 후에는 고려시대 전통의식인 심회향놀이가 진행됐다. 고려시대까지 전승된 불교의식인 심회향 놀이는 영산재 본의식 이후 연회로, 참가자들이 그 기능과 예능을 뽐내 공덕을 회향하는 뒷놀이 행사다. **노덕현 기자**

# 삼성사 대웅전 상량 원효 설총 일연 탄생지

신라의 3대 성인(三聖)으로 불리는 원효 설총 일연이 탄생한 경산 삼성산 기슭에서 대작불사가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산 삼성사는 9월 4일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을 범사로 대웅전 상량기념 법회를 병행했다.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행사에서 정무 스님은 법문을 통해 “경산에 큰 경사가 났다. 삼성사의 대작불사는 전세계의 경사로서 영겁의 세월로도 가치를 모두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사업”이라며 “참진주 현관란(보행심) 보살을 칭송했다.”

지난 3월 말 기공식을 시작으로 건립중인 삼성사 대웅전은 50여 평 규모로 건립중이다. 대웅전과 함께 좌우 2동의 2층 규모 요사채가 함께 건립 중으로 연말 낙성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053) 856-1110

**순법천 대구지사장**

# 청평사 명승 지정 춘천시 신청 예정

고려 시대 조경시절인 영지(影池) 등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춘천 청평사 일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된다.

강원 춘천시(시장 이광준)는 “강원도를 통해 문화재청에 청평사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9월 8일 밝혔다.

고려 광종 24년(973)에 창건된 청평사는 도교적 은둔관과 불교의 선사상이 내재된 선원으로 고려 선종 6년(1089) 이자현이 문수원을 중건하는 등 경관적 특징이 남아 있는 사적지이다.

청평사에는 보물 제164호인 회전문을 비롯해 16세기 건축양식 변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이 다수 보존돼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청평사, 영지, 옛길 등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영동난계국악축제 영국사서 성료

제4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산사음악회가 9월 4일 오후 5시부터 천태산 영국사(주지 청원)에서 정구복 영동군수를 비롯한 군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난계국악단 연주로 열린 이날 음악회에 첫 번 출연자는 주요무형문화재 97호 살풀이이수자 조희열님의 승무로 정과 등의 표현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민속 무용 중 가장 예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난계국악단의 가야금, 소금 중주로 ‘여행’, 김윤희씨의 피리독주로 유초신지곡 중 첫 번째 곡인 ‘상령산’, 가야금 거문고 중주로 황병기 선생이 처음 가야금 독주곡으로 만든 ‘침향무’가 연주되고, 김경훈씨 대금독주 ‘김동진류 산조’, 국악기로 연주하는 영화음악으로 ‘fly me to the moon’과 칼럼 중 하바네라, 탕고가 연주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전

### 보 상감청자투각佛 법륜대(운장대) 권클봉안 해

동참집수 : 2009년 5월~ 9월 5일 | 점안식 : 2009년 9월 6일(일) 오전 10시 50분  
도동산 성불사 ☎ 954-9848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합마사 청오 합장 -

실용신인특허기술  
복장소경책  
불사의 어려움을 환타라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외연을 이루소서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법륜대  
재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높이: 110cm  
원통폭: 45cm  
일련침폭: 30cm  
무게: 25kg

#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 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식)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형 소법륜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건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털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